



12면

전북도 비대면 관광지
7선 중 6곳 방문객 늘어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음 12월 9일) 제2702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주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선언

어려운 자영업자에 먼저 손 내밀다

시, 3월 31일까지
캠페인 벌이기로
전주사랑상품권
캐시백 20%로 확대

참여하면 최대 30만원
미리 결제 후 여러 차례
걸쳐 물건 구입 가능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 시민과 함께하는 착한 선결제 운동을 벌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다.

시는 20일 김승수 전주시장·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문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지부장, 전주시설관리공단 백순기 이사장과 강성필 노조지부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운혁 원장과 한용 노조지부장,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상신 원장과 김용준 노조지부장,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유강열 원장과 허종기 노조지부장,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대 원장과 최용관 노조지부장,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영애 사무국장과 김선범 노조위원장,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과 김장주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의 선언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16면>

3월 31일까지 70여 일 동안 진행되는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이다.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의 선결제, 예술공연 티켓 선구매, 화훼업소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현금이든 전주사랑상품권이든 모두 가능하다.

시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 성공을 위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전주사랑상품권 혜택을 예산 범위 내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충전한도



김승수 전주시장이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착한 선결제 운동 선언식'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런 혜택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충전한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3월 31일 이후에는 10% 추가 인센티브가 소멸된다.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단계로 이날부터 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출연기관, 산하단체 임직원 등 5,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업소당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는 민간 중심의 2단계 선결제 운동이 전개된다. 대기업, 금융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라이온스, 로터리, 동 자생단체 회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전주 전역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시는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활성화로 팍 막힌 지역경제 송풍도 시원하게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

컨대 5만 명의 시민이 전주사랑상품권을 두 달 동안 100만원씩 충전해 선결제를 할 경우 총 1,000억원이 시중에 돌게 된다.

시는 시민들이 선결제해 업소가 폐업하는 경우에 대비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선결제를 한 업소가 폐업을 해 5월까지 나머지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 인증을 해야 한다.

시는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종합 안내와 행사 추진을 지원할 지원상 황실을 3월 말까지 운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는 선결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는 쿠폰과 홍보물을 배부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행을 부수는 상상력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 줄 아는 용기,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사회적 연대를 통해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상 기자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지역경제 반등에 '힘 집중'

전북도가 올해 지역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과 민생경제의 안정적 재도약을 위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경제 정책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 신년 브리핑을 20일 열고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와 금융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 7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전북도가 발표한 경제 4개 분야는 ▲지역특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도민 삶의 안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공유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산업 분야 기업 유치, 금융산업 육성 분야 등이 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경제 활성화 사업전반의 효과성을 검토해, 새롭고 균형 있게 또한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적인 정책에 선택과 집중하면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형 뉴딜 연계 '제2 창업 붐' 조성

전북도-전북중기청, 창업기관협 대표자 회의

소재·그린 등 BIG3 분야
혁신 창업 뉴딜 패키지 논의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전북도 창업기관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20일 개최하고, 혁신 창업 관련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간사를 맡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은 "2020년 6월, 창업기관 협의회 출범 이후 추진 상황과 올해 중점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거버넌스 운영 ▲도약·성장기 지원 확대 ▲투자 인프라 활성화 ▲창업 성장 거점 구축 등 협의회가 선정한 분야별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지역형 뉴딜정책과 관련한 혁신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송하진 지사 주재로 진행된 안건 논의에서는, 도내 전략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BIG3 혁신 창업 뉴딜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본 안건은, 한국판 뉴딜이 제시한 디지털·그린과 더불어, 지역 균형 뉴딜 차원의 지자체 대표과제로 제안된 혁신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향후 4년간 950억원 규모의 사업과 패키지 지원과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전북도 전략산업 중 ▲소재(탄소, 농생명·바이오) ▲디지털(금융·핀테크) ▲그린(친환경 미래차) 분야를 BIG3로 집중육성 하지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 대표자들은 "BIG3로 선정된 전략산업과 관련해 인프라가 지속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기술창업 신생률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소재 분야는 국립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유치와 (주)효성 전주공장의 국내 최대의 신소재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R&D 혁신 기관과 상용화 전문기관이 밀집한 농생명·바이오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관련으로는 도가 추진하는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고, 연가금 및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핀테크 창업기업 발굴 육성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전북도가 보유한 새만금 자율주행 시험장을 탄소 경량 소재, 수소연료 전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래형 운송 수단 분야 창업기업의 실증 테스트 최적지로 활용에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창업기관협의회를 실무자 중심의 '기획 주도형' 협의체로 역할을 강화하고, 앞서 논의된 혁신창업 뉴딜 패키지 등을 활용해 2024년까지 대표 창업 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래비전을 설정했다.

향후 구체화를 추진하는 혁신창업 5대 브랜드 과제로는 ▲전북형 뉴딜 실현을 통한 예비 유니콘 발굴 ▲소재 국산화 거점 및 탄소 복합체 新수요 창출 ▲금융·빅데이터 연계 핀테크 창업메카 조성 ▲전북형 스타트업 멀티플렉스 구축 ▲민간 협력형 청년친화 혁신창업 특구 조성으로, 제2 창업 붐 확산과 더불어 예비 유니콘이 모이는 전북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도한 송하진 도지사는 "혁신성장의 시작점인 창업기업이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되면 안 된다"면서 "비대면 지원방식이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북형 뉴딜 혁신창업 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개진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